

■ 2000년 금융산업 구조 변화 ■

□ 2000년 금융산업 환경

- (경쟁력 제고의 필요성) 최근 세계적으로 대형화, 국제화, 겸업화(방카슈랑스), 전자상거래화 등 금융환경 변화의 폭과 깊이, 그리고 속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. 이러한 무한경쟁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취약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어, 경쟁력 강화책이 절실히 요구됨

□ 2000년 금융기관 구조 전망

- (은행 산업) 외부 환경 변화 및 정부의 합병 유도 방침 등에 따라 4극체제를 유지하던 은행산업은 2극체제, 즉 국내 대형 선도은행과 외국계/외국 자본 제휴 은행간 경쟁으로 특징지어질 전망이다
- (증권 산업) 증권산업은 99년의 폭발적인 사이버 거래에 힘입어 수익성 증가 등으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나, 수수료 인하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 기반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
- (보험 산업) 99년의 구조조정 마무리로 중소형 보험사들이 퇴출됨에 따라 2000년부터는 본격적인 대형 보험사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대형 보험사와 외국 보험사간의 경쟁으로 특징지어질 전망이다
- (종합금융그룹 출현) 금융의 겸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은행 및 증권의 대형화 및 외국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종합 금융그룹의 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
2000년 금융산업 구조 변화

2000년 금융산업 환경 변화

○ 은행 산업의 환경 변화

- 인터넷 뱅킹 확산에 따른 소매금융 시장 잠식 우려
 -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금융기관의 진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인터넷뱅킹의 도입 확산에 따라 국내 소매금융시장은 외국기관들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
 - 이미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美 씨티은행은 한국에서 온라인 은행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는 등 외국계 금융 기관들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한국의 소매금융 시장을 크게 잠식할 우려가 있음
- (은행들의 부실채권 부담 가중) 대우 파산에 따른 약 100조 원에 이르는(정부 발표 86조 8천억 원) 부실채권 발생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부담이 우려됨
 - 특히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화의 기업에 대한 부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올해에도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
 - 이에 따라 올해 금융기관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적어도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
- (FLC 적용 적용에 따른 추가 부담) 올해부터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미래상환능력까지 감안(FLC: Forward Looking Criteria)하여 결정됨에 따라 은행의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부담이 예상됨
 - 금융연구원에 따르면,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행 분류기준에 비해 추가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 규모는 시중은행은 평균 6000억 원, 지방은행은 평균 600억 원으로 예상됨
 - 이 경우 11개 시중은행 전체로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모가 6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

○ 증권 산업의 환경 변화

- (수수료 인하 경쟁에 따른 수익 기반 약화) 사이버 거래의 증가에 따른 증권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
- 99년의 경우 증시 호황에 따라 증권사의 전체 수수료 수입은 98년에 비해 3.7배 증가하였음
- 인터넷 확산에 따라 사이버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사이버 거래 수수료 인하경쟁이 치열(99년 4월 0.5% → 2000년 1월 최저 0.06%)해지면서 수익구조의 악화가 우려됨
- 99년 4월에서 99년 9월까지의 증권사의 영업수익 구조를 보면 수탁수수료 수입이 41.0%를 차지하고 있어 수수료 체로 시대가 도래할 경우 증권 산업의 수익 구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임

< 99년 4월 ~ 99년 9월까지의 증권 산업 영업 수익 구조 >

영업수익총계	수탁수수료	수익증권 수수료	유가증권 매매이익	파생상품 거래이익	기타
9.5조(100%)	3.9조(41.0%)	1.2조(12.6%)	1.6조(16.8%)	9천억(9.5%)	1.9조(20.1%)

- (금융 변수의 변동성 증가에 따른 유가증권매매이익 감소 우려) 금융시장 개방과 사이버 거래 확산에 따라 금융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유가증권 매매이익도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음
-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본격적인 사이버 거래의 활성화로 일일거래 등 거래가 초단기화 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위험성을 증가시켜 증권사의 자기 매매 및 중개 관련 수익도 감소할 우려가 있음

우리나라 은행 및 증권사의 경쟁력 비교

- (은행 산업의 경쟁력 비교) 일반 은행과 국내 외국은행 지점 모두 외환위기 여파로 97년과 98년 재무비율이 크게 악화되었으며, 외국계은행의 재무비율이 국내 은행보다는 양호한 상황임

< 국내은행의 평균 재무비율 >

(%)

구분	1995	1996	1997	1998
자산이익률(ROA)	0.32	0.26	-0.93	-3.25
자본이익률(ROE)	4.19	3.80	-14.18	-52.53
무수익여신비율	5.2	4.1	6.0	7.4
BIS 비율	9.33	9.14	7.04	8.23

자료: 금융감독위원회.

주: 99년 9월 현재 무수익여신비율 : 6.2, 99년 6월 현재 BIS 비율 : 9.84.

-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는 ROA, ROE 모두 마이너스(-)를 기록함에 따라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적자 누적이 가시화되었음

< 외국은행 지점의 평균 재무비율>

(%)

구분	1995	1996	1997	1998
신탁계정 포함(ROA)	1.17	1.53	3.89	1.76
신탁계정 제외(ROA)	1.24	1.61	4.00	1.78
ROE	10.28	12.51	34.79	14.82
무수익여신비율	0.50	0.30	0.43	1.17

- (증권 산업의 경쟁력 비교) 국내 증권사와 외국증권사 지점 모두 사이버 거래가 개시된 99년부터 본격적인 수익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나, 국내 증권사의 수익성 지표는 외국증권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

< 국내 증권사 및 외국지점의 평균 재무비율 >

(단위: %, 조 원)

구분	국내증권사		외국증권사지점	
	1998	1999	1998	1999
ROA	1.39	8.86	17.09	29.02
ROE	7.39	32.40	27.54	46.89
세전순이익(조 원)	0.49	5.24	0.14	0.45

주: ROA 및 ROE 계산시 세전순이익을 사용하였음.

정부의 금융기관 경쟁력 향상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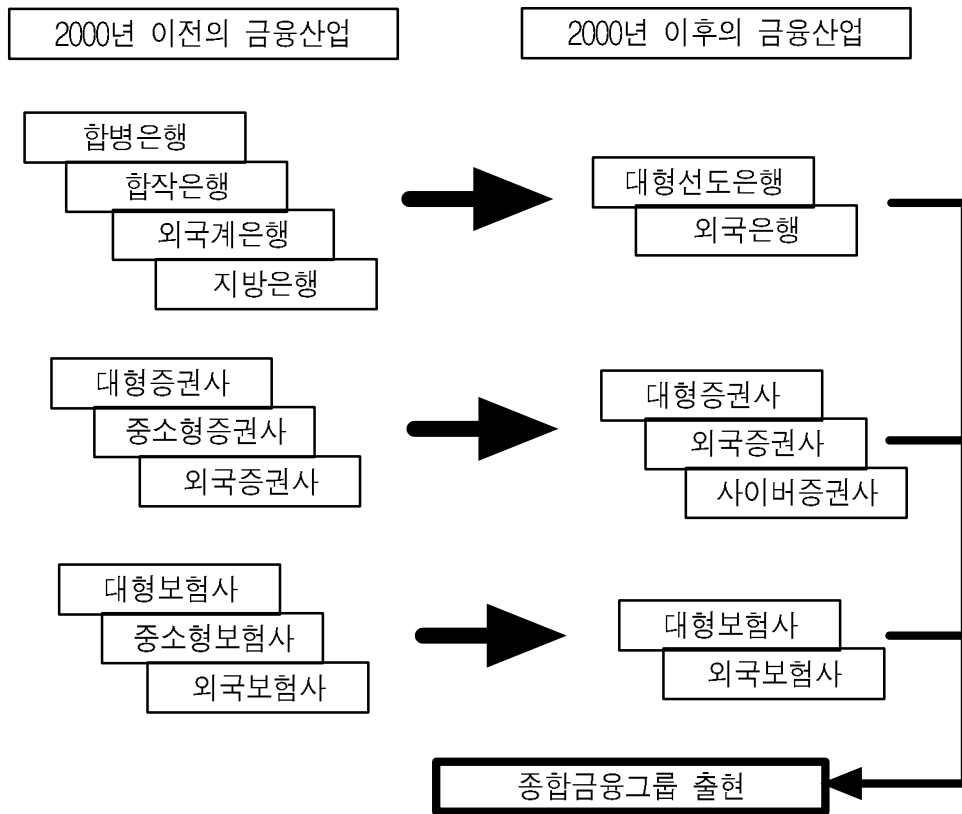
- (자율적 합병 유도)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정부는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을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음
- 정부는 2000년 금융개혁 과제를 구조조정을 통한 하드웨어 개선보다는 시장기능 복원에 중점을 두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기하기로 함
-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우사태 이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금융업종의 겸업화, 대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촉진,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인수합병 유도 등이 검토되고 있음

2000년 금융기관 판도 전망

- (은행 산업) 정부의 은행간 자율적인 합병 유도 방침에 2000년 이후 은행산업은 국내 대형 선도은행과 외국은행의 양극체제로 특징지어질 전망이다
- 2000년 들면서 은행 산업의 환경이 겸업화(방키슈랑스), 인터넷화, 외국 은행의 진출 증가 등으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형화, 외국은행과의 합작 추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또한 인터넷 뱅킹의 확산에 따른 외국은행의 소매금융 잠식이 우려됨에 따라 기술적 우위에 있는 외국은행과 국내 대형 은행들의 인터넷 뱅킹 확산으로 중소 은행들의 입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
- 이에 따라 4극체제를 유지하던 은행산업은 2000년 이후부터는 시장환경의 급변으로 양극체제, 즉 국내 대형 선도은행과 외국계 은행 또는 외국 자본 제휴 은행간의 경쟁으로 특징지어질 전망이다
- (증권 산업의 판도 특징) 99년의 폭발적인 사이버 거래에 힘입어 수익성이 증가하였으나 수수료 인하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 기반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
- 이에 따라 증권산업의 판도는 사이버 거래의 증가와 함께 사이버 증권사의 시장 진

- 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, 중소형 증권사는 대형 증권사로의 흡수 합병이 예상된다
- (종합금융그룹 출현 가능) 2000부터는 금융의 겸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은행 및 증권사의 대형화 및 외국기관과의 합작을 통해 종합 금융그룹의 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 - 정부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금융의 겸업화가 가속화될 경우 종합금융그룹의 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
< 2000년 이후의 은행 및 증권 산업의 판도 변화 예상 >



(천일영 연구위원 iycheon@hri.co.kr ☎ 3669-4028)